

2014.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싱가폴, 말레이시아)



2014년 10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I 연 수 개 요

□ 연 수 목 적

- 행정계획 도시 및 친환경 도시재생과 관련한 우수정책 및 자료수집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관광자원 운영관련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행정·문화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향상

□ 기 간 : 2014. 10. 05.(일) ~ 10. 10.(금) (4박6일)

□ 연수단 구성 : 14명

- 단 장 : 강서구의회 의장 이연구
- 단 원 : 신창욱(운영위원장), 김병진, 장상기, 탁수명, 김용원, 김동협, 이의걸, 조기만
- 수행공무원 : 5명(한민섭 수석전문위원, 조시준, 손승현, 송두석, 오승민)

□ 주요 방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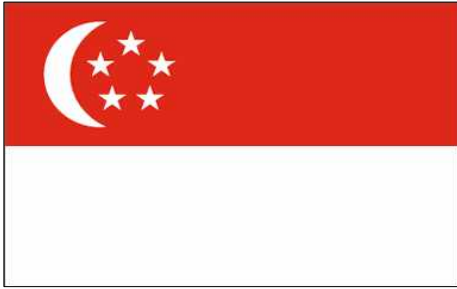
-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및 센토사 섬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 공사 및 복지시설(피스-커넥트)
- 말레이시아 하수도 관리부 및 고형폐기물 관리부
- 주요도시 현장시찰 및 문화 탐방

연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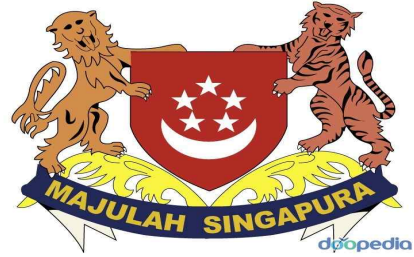
월 일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제1일 10/05 (일)	인천공항 싱 가 폴	KE641 전용버스	14:20 19:30 20:30 21:30	인천 국제공항 출발(약 6시간 10분 소요) 싱가폴 국제공항 도착 호텔이동 호텔 도착 후 휴식	
제2일 10/06 (월)	싱 가 폴	전용버스	09:30 10:00 12:00 14:00 18:00	조식 후 호텔 출발 ▶ 현장시찰 :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중식 ▶ 문화탐방 : 센토사섬(싱가폴 문화 관광 산업) 석식 후 호텔 휴식	
제3일 10/07 (화)	싱 가 폴 말 라 카	전용버스	08:30 09:00 10:00 11:00 13:00 15:00 18:00	조식 후 호텔 출발 ▶ 기관방문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공사 ▶ 현장시찰 : 싱가포르 복지시설(피스 커넥트) 말라카로 이동 중식 ▶ 문화탐방 : 말라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석식	
제4일 10/08 (수)	말 라 카 쿠 알 라	전용버스	09:00 12:00 15:00 18:00	조식 후 쿠알라룸푸르 이동 중식 ▶ 기관방문 : INDAH WATER(국가 하수도 관리부) 석식 후 호텔 휴식	
제5일 10/09 (목)	쿠 알 라	전용버스 KE672	09:00 10:00 12:00 14:00 18:00 23:15	조식 후 출발 ▶ 기관방문 : NSWMD(고형 폐기물 관리부) 중식 ▶ 현장시찰 : 신행정도시 푸트라자야 시찰 석식 후 공항 이동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출발(약 6시간 40분 소요)	
제6일 10/10 (금)	인 천		06:40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II 연수국가 일반현황

□ 싱가포르



< 국 기 >



< 국 장 >

- 정식 국가 명칭은 싱가포르 공화국(The Republic of Singapore)이다.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로, 이후 영국의 해협식민지가 되었고, 1959년 새 헌법에 따라 영국 연방의 자치령이 되었다. 1963년 말레이시아의 일부가 되었다가 1965년 주권국가로서 분리 독립하였다.



○ 개 관

1. 위 치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
2. 기 후 :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
3. 면 적 : 710km²
4. 인 구 : 약 499만 명
5.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6.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7. 주요민족 : 중국계(74.7%), 말레이계(13.6%), 인도계(8.9%), 기타(2.8%)
8. 주요언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9. 종 교 : 불교·도교(51%), 이슬람교(14.9%), 기독교(14.6%), 힌두교(4.0%)
10. 교 육 : 의무교육 6년(초등학교)

○ 정 치

싱가포르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임기는 6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싱가포르의 대통령은 상징적이거나 실질적 권한이 없는 직책이었다. 그러나 1991년 1월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행정부의 구성원인 총리와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중 1명을 총리로 임명 하는데 임명 절차를 제외하고 총리는 정치·행정 및 각 분야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이다.

싱가포르의 의회는 기본적으로 영국 의회제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영국과 달리 1955년 제정된 렌들헌법(Rendel Constitution)에 따라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회의 고유 권한과 임무는 국가의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기타 주요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다.

○ 경 제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주도의 개발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리완유를 중심으로 한 인민행동당(PAP)이 독립 이후 장기 집권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경제개발 초기부터 정부는 외자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이 싱가포르 경제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은 싱가포르가 지리적 협소성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전략이었다.

○ 사 회

싱가포르는 중국인·말레이인·인도 파키스탄인·유럽계인 등이 저마다 다른 언어·풍속·습관·문화·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문화가 섞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종에 따라 직업도 다른데 대부분 중국인은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상업에 종사하고, 말레이인은 하급공무원과 하급노동자로 일하며, 인도인은 공무원이거나 택시기사, 청소부 등이 많다. 이러한 복합사회는 인종간의 대립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인종적으로 분단되는 데다가 단체 등으로 다시 분단되기 때문에 계층 문화가 표면화되지는 않는다.

○ 교 육

학제는 초등 6년, 중등 4년, 대학전교육 2~3년, 대학 3년제로 모든 학생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언어 교육을 중시하며 각 인종의 고유 언어 외에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정책을 시행하며, 1997년 홍콩의 중국 본토 복귀 이후 중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표준어 배우기를 권장한다. 대학교육은 탈아시아를 선언하며 장학금 수혜와 같은 각종 혜택을 주면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경우 세계 20위권에 드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문 화

싱가포르는 서양의 세계주의적인 문화의 포장 아래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의 전통이 공존하는 다문화 도시국가이다. 싱가포르 각 민족의 무용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공연한다. 싱가포르 최초의 프로 발레단인 싱가포르 댄스 시어터는 클래식 발레와 동서양의 요소가 혼합된 현대무용 레퍼토리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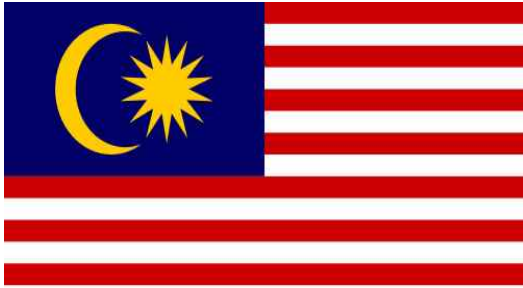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활동무대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른 예술분야보다 많은 비율의 음악가들을 육성시켜왔다. 싱가포르 출신 클래식 음악가는 해외에서 크게 이름을 떨쳤으며 그들의 감성과 뛰어난 음악해석, 테크닉의 완성도로 존경받고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1970년 12월 싱가포르에 한국의 통상경제 대표부가 개설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71년 7월 대표부가 총영사관으로 승격하였다. 이어 1972년 12월 양국간 항공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75년 8월 영사관계가 대사 관계로 승격하였다. 또 1979년 11월 한국·싱가포르 간 ‘이중과세(二重課稅)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해외건설시장으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72년 한국의 건설업체가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한국인의 기술로 건설되었으며, 그중에서 쌍용건설(주)이 시공·완성한 싱가포르의 래플시티는 복합건물로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11대 교역대상국(수출 7위, 수입 13위)이며, 싱가포르 통계기준으로는 한국은 싱가포르의 9대 교역대상국(수출 10위, 수입 8위)이다. 현재 약 7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으며, 상당수 기업은 동남아 지역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여러 분야에서 지역내 또는 세계적 차원의 허브로서 기능하는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경제 대상국이다.

□ 말레이시아



< 국 기 >



< 국 장 >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단과 보르네오섬 일부에 걸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786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1957년 싱가포르를 제외한 말레이반도 11개 주가 통합하여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고, 1963년 싱가포르·사바·사라와크를 합쳐 말레이시아가 되었다가 2년 후 싱가포르가 탈퇴·독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 개 관

1. 위 치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2. 기 후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연평균 기온 32℃, 강우량 2,410mm
3. 면 적 : 32만 9847km²(한반도 면적의 약 1,5배)
4. 인 구 : 2825만 명(2010년 기준)
5. 수 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약 160만 명 거주
6.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양원제,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
7. 주요민족 : 말레이계(60%), 중국계(25%), 인도계(7%), 기타(8%)
8. 주요언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인도어 등
9. 종 교 :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그리스도교 등

○ 정 치

말레이시아의 정체는 입헌군주국이다. 국왕은 각 주의 술탄 9명 가운데 5년마다 호선(互選)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국왕의 정식명칭은 양디페르투안 아공이며 흔히 '아공'이라고 부른다.

국왕은 연방정부 최고의 수반으로 행정,입법,사법 권력의 원천이자 군 통수권자, 연방특별구 및 술탄이 없는 4개 주의 이슬람 최고지도자이다. 그러나 군림하나 통치할 수 없고 임기동안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실질적인 정치는 하지 않는다.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은 국왕이나 실질적인 행정권은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에 있으며 내각의 수장은 총리(Perdana Menteri)이다. 총리는

매주 소집되는 내각회의를 통해 국가 대부분의 중대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내각은 각 부처의 장관과 부총리, 그리고 입법부의 의원인 총리실에 소속된 4명의 장관들로 구성된다. 국왕에 의해 임명되는 총리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출생의 시민권자이며 하원 다수당의 당수이어야 하며 재선에는 제한이 없다.

○ 경 제

말레이시아의 '복합사회'를 구성하는 인종은 경제면에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말레이인(人)은 농업(고무·벼농사를 하는 소농민)·행정·군대·경찰 등에, 중국계는 상인·주석광산·고무농장노동자·기술전문직에, 인도계는 고무농장노동자·운수부문·중하급공무원직 등에 각각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밖에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구미자본이 주요고무농장 및 주석광산과 수출입·은행·선박·보험 부문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제의 근대적 발전은 19세기 말부터의 고무농장 개척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열대지방의 농장 경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전형적인 예이다. 말레이시아의 고무는 세계 천연고무 생산의 약 40%를 차지한다. 주석은 고무보다 먼저 말레이시아 개척의 요인이 된 것으로, 19세기 중엽부터 채굴되었다. 주석 외의 광물자원 개발도 활발하여, 반도 남부의 철광석·보크사이트광 등은 각지에 수출되며, 금광산지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 사 회

1957년의 말라야 연방 성립 때까지 술탄을 정점으로 하는 이슬람교적 위계제도(位階制度)는 말레이인 사회에만 존재하였으나, 그해에 제정된 '독립헌법'에 의해서 중국인·인도인도 국적 취득의 조건으로서 술탄의 충성스런 신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 조건은 1963년 말레이시아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중국인·인도인으로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적다. 이들의 일상회화는 중국어·타밀어이며, 각 인종간의 통혼도 별로 예가 없다. 중국인의 생활에서는 동향(同鄉) 조직인 방(幫)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푸젠방[福建幫]·광둥방[廣東幫]이 최대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 동업조직적 성격도 겸하며, 푸젠방의 경우 고무농장 경영자가 많다.

○ 교 육

대학교육은 초급대학·교육대는 3년, 대학교는 4년이며, 대학의 수업도 1981년까지 완전히 말레이어화 되었다. 대학은 말라야대학교(1962), 이과대학(1969), 국민대학(1970), 농업대학(1971), 공과대학(1972) 등 국립대 12개교, 사립대학 7개교가 있다. 인구에 비해 대학수가 적고, 말레이인과 비말레이인 간의 대학 입학정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문맹률은 11% 수준이다.

○ 문 화

말레이시아 국민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의 영향을 받아 매우 독특하고 다양하다. 상대민족의 신념, 믿음, 전통에 대한 조화, 협력, 참을성이 말레이시아 문화의 독특한 융화를 이끌어냈다. 말레이시아 문화에서 문학과 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흥미로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종교·민족에서 비롯된 엄청난 수의 전통축제이다. 이슬람의 축제인 라마단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에 속한다. 중국 축제인 신년행사는 거리의 오페라인 사자춤에 의해 절정에 이르며 여러 문화행사 중 가장 화려하고 요란한 행사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말레이시아는 1960년 2월 한국과 수교하였으며, 1962년 5월 말레이시아에 한국 상주 대사관을, 1964년 4월에 한국에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각각 설치했다.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은 무역협정(1962), 문화협정(1965), 항공협정(1967), 이종과세 방지협정(1983), 사증면제협정(1983), 과학·기술협력협정(1985), 투자보장협정(1988), 해운협정(1988)이다.

한국의 말레이시아 수출은 52억 달러, 수입은 72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2대 교역국이다.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 등이며, 수입품은 반도체, LNG, 원유, 목재 등이다

Ⅲ 주요방문지별 견문 결과

1. 싱가포르

1) 도심 속 자연공원 - 보타닉 가든

○ 강서구 마곡지구에 대한민국 대표 보타닉 공원을 조성한다. 서울의 녹색심장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중인 이곳은 아시아 최고 보타닉 파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여의도 공원보다 2배이상 큰 대형 공원을 조성해 5천종 이상의 도시형 식물원, 도시 공원, 미래도시에 걸 맞는 신개념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런 강서구의 광대한 프로젝트에 맞춰 연수단이 선택한 곳은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이다.

○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은 열대림, 양치류, 장미, 난초류가 자라고 있는 정원과 3개의 호수가 있다. 보타닉 가든 내에는 싱가포르 최대 난 공원으로 1,000여 종이 넘는 난을 보유한 오키드 가든(The National Orchid Garden)이 있다. 오키드 가든에는 이곳을 방문한 유명 인사의 이름을 딴 난들이 있다. 보타닉 가든 입장료는 무료지만, 오키드 가든은 따로 입장료를 내야 한다.





▲ National Orchid Garden



▲ 시설 견학중인 연수단

○ 보타닉이라는 말 그대로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테마별로 자라고 있다. 보타닉 가든이 중요한 이유는 싱가포르라는 섬나라의 중심에 도시 친화적 식물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쩔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서면 보타닉 공원이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조성되고 있다. 연수단은 각 테마별로 구성된 보타닉 가든을 살펴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이 시작될 마곡지구의 보타닉 가든의 미래를 구상해 본다.



▲ 시설 견학중인 연수단



▲ 시설 견학중인 연수단

2) 싱가포르 안의 또 다른 싱가포르 - 센토사 섬

- 싱가폴은 2005년 발표한 '관광(Tourism) 2015' 계획에 따라 관광산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센토사(Sentosa)와 마리나 베이(Marina Bay) 두 지역의 카지노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5년까지 관광 수입 300억 싱가포르 달러를 달성, 연간 관광객 1,700만명 유치 및 관광 일자리를 25만 개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6년간 사용해온 싱가포르의 관광 슬로건 '유니클리 싱가포르(Uniquely Singapore)'를 2010년 '당신의 싱가포르(Your Singapore)'로 변경하고 수요자 위주의 관광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 그 중 연수단이 방문한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으며, 크기는 동서길이 4km, 남북길이 1.6km이다. 지명은 말레이어(語)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 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었다.



▲ 싱가포르의 상징 메라이언



▲ 센토사 섬

- 싱가폴은 기존의 센토사(Sentosa) 관광 단지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포함하여 카지노, 호텔, 쇼핑몰 및 레스토랑 등을 갖춘 복합 관광 시설 '리조트 월드 센토사(Resort World Sentosa)'를 건설하여 2010년 2월 14일 개장했다.



▲ 센토사 섬



▲ 센토사 섬

- 연수단은 센토사 섬 방문을 통해 싱가폴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관광 단지임에도 잘 정돈된 거리와 체계화된 교통 인프라 등은 연수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카트 이동



▲ 센토사 섬 모노레일

3) 도시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보다 - 도시재개발 공사

○ "To make Singapore a great city to live, work, and play."

시민들이 멋지게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 한다. 도시 그 자체가 경쟁력이고 힘인 싱가포르의 이야기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도시개발청의 단순하지만 꽤 멋진 슬로건이다. 이곳은 1999년에 개관하여 도시의 옛 50년의 변화상과 또 앞으로 50년의 미래상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다.

○ 이곳은 국가 계획의 성과를 보여주는 싱가포르에서 유일한 곳이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두드러진 변형을 보여준다. 3층 건물 2,400m²의 공간에 10개의 테마와 50개 이상의 시청각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연수단



▲ 싱가포르 도시 모형

○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1971년부터 시작된 10년 단위의 컨셉플랜과 매 5년마다 이뤄지는 마스터플랜이 있다. 토지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50년 후의 경제상황, 인구, 수송문제를 고려해 10년단위의 토지이용원칙을 세우고 5년마다 실제 운용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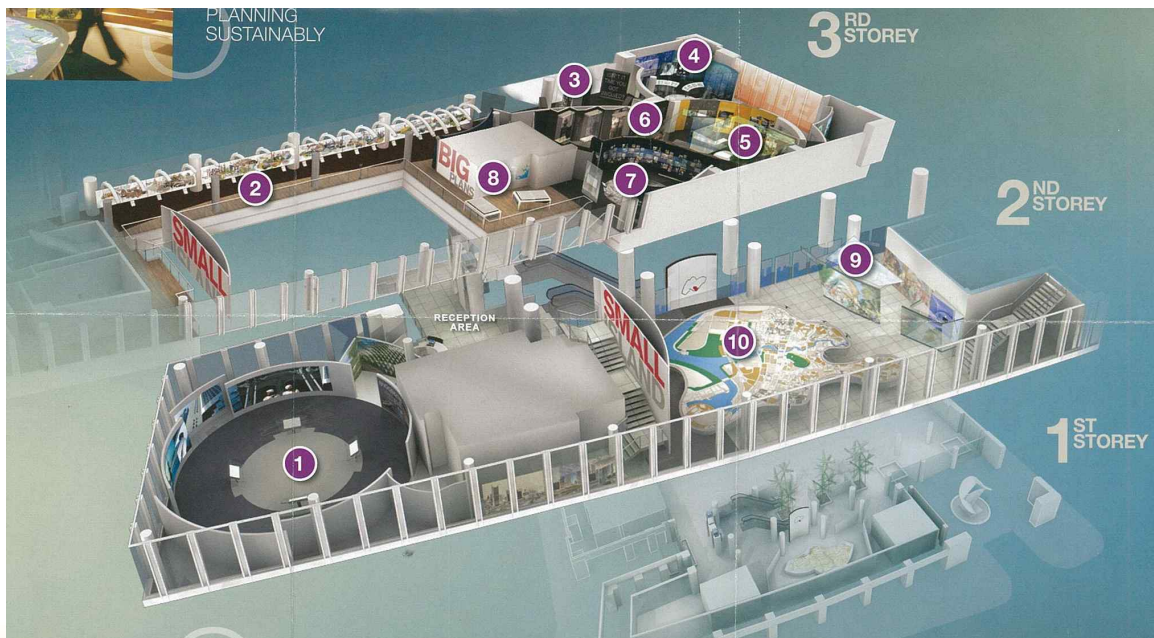


▲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연수단



▲ 싱가포르 도시 모형

○ 싱가포르의 50년을 바라보는 도시계획은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도시계획과는 너무나 차이를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싱가포르에서는 투기가 없고 합리적인 투자만 존재한다고 한다. 당장 강서구 마곡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50년을 바라보는 도시계획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으며, 관내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해서도 이런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4) 싱가포르 복지시설 - PEACE CONNECT

○ 연수단이 방문한 싱가포르의 노인복지시설인 PEACE-Connect는 1995년 11월에 작은 방 하나를 빌려서 SSAC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98년 3월 공간을 확장하여 같은 목적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 후 노인 복지 시설을 목적으로 2003년 1월 PEACE-Connect는 330m²의 공간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60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지역이 9개 블록으로까지 확장되었다.

○ "one in an extended family" 이 시설의 기본 정신이다.

Peace-Connect는 첫째,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동원하여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둘째, 각 방마다 AAS(alert alarm system) 운영. 셋째, 자원봉사자를 통한 활력적인 생활을 증진. 넷째, 세대간 상호 작용을 위한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 지고 있다.



▲ 피스-커넥트 관계자와 함께



▲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연수단

○ Peace-Connect는 두가지 특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노인들을 위한 경제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AAS(alert alarm system)이다.



▲ Alert Alarm System



▲ Alert Alarm System

○ AAS는 각 방마다 노인들을 위해 설치되어 진다. 이 시스템은 주거공간과 화장실 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들은 생활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간내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근무시간내에 시스템 작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 방문 기념 선물 교환



▲ 시설 견학중인 연수단

2. 말레이시아

1)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 말라카

- 말라카주(州)의 주도(州都)로 말라카강(江) 어귀에 있으며 강의 좌안에 세인트폴 언덕이 솟아 있다. 말라카해협 해상교통상 요충이며, 동남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다.
- 원래는 한촌에 불과하였으나 14세기에 수마트라섬에서 온 파라메스바라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동서무역의 중계지로 번창하였다. 1511년 아시아에 진출한 포르투갈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아시아 최초의 유럽 식민지로 만들어 향료 무역의 독점과 그리스도교의 선교 기지로 삼았다. 그 후 1641년 네덜란드가 빼앗아 해협을 지배하였고, 1824년 영국의 소유가 되었다.



▲ 세인트 폴 성당



▲ 세인트 폴 성당

- 각국의 쟁탈사는 결과적으로 말라카에 많은 사적을 남겼는데, 세인트폴 언덕의 유적을 비롯하여 세인트존 언덕의 성채가 그것이며, 이밖에

박물관도 있다. 근세에 와서는 화교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싱가포르에 밀려 연안무역항에 지나지 않는다.



▲ 청훤텐 불교사원



▲ 청훤텐 불교사원

○ 말라카의 험난한 역사가 지금의 여러문화를 대표하는 것 같다. 연수단은 과거와 현재의 말라카의 역사를 되새겨 보며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만 과거의 아픔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 크라이스트 처치 및 네덜란드 광장



▲ 산티아고 요새

2) 국가하수도 관리부 - Indah Water

○ VISION

「To be the premier, efficient and environment caring sewerage company」

○ MISSION

「To be highly committed to providing efficient sewerage services to all customers towards sustainable and friendly environment」

○ Five Key Focus

- SOUND FINANCIAL PERFORMANCE
- CUSTOMER SERVICE EXCELLENCE
- OPERATIONAL EXCELLENCE
- STAFF MOTIVATION & DEVELOPMENT
- CAPTURING NEW OPPORTUNITIES



▲ Indah Water

▲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연수단

- Indah Water는 모든 말레이시아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 하수도 관리 회사이다. 1994년 지역정부의 지휘아래 전국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그 후 몇몇 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ndah Water는 920개의 펌프 스테이션과 16,300km의 하수라인, 6,000개 가까운 공공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19개의 지역 사무실과 1곳의 중앙 사무실, 56개의 조사센터와 3개의 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연수단



▲ 시설 견학중인 연수단

-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은 국가에서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처리되어 진다는 믿음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나라의 수자원을 보존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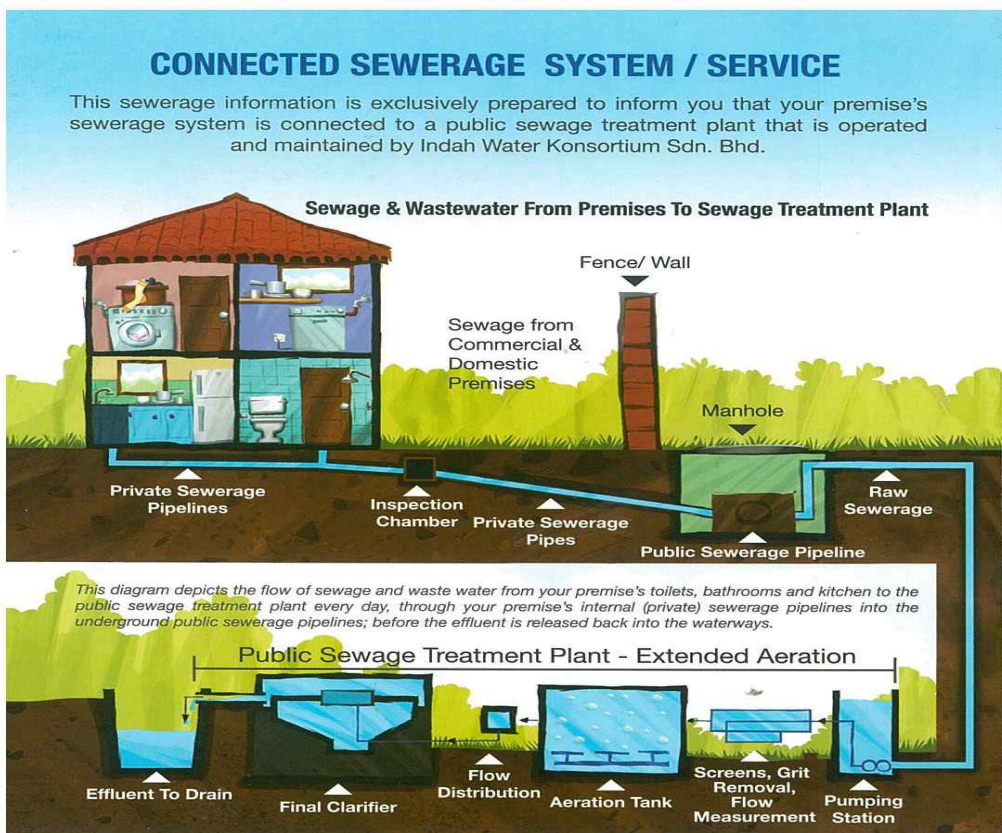


▲ 관계자와의 선물 교환



▲ 기념 촬영

○ 최근 Indah Water는 필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와 나아가 미래에까지 말레이시아는 Indah Water의 체계화된 하수 관리 시스템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고품 폐기물 관리부(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Department)

○ VISION

「To provide a sustainable, integrated, efficient and cost-effective solid waste and public cleansing management system」

○ MISSION

「To consistently upgrade the quality of solid waste and public cleansing management through policy formulation, strategy, action plan and law」

○ 목 표

- 공중보건을 유지하고,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고품 폐기물 관리 시스템 유지
-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움 경관 보존
- 고품 폐기물과 공공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계획, 법률 등을 만들어 내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NSWMD



▲ 관계자와 면담을 나누는 연수단

- 과거 말레이시아는 거대한 쓰레기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관리 기준은 극히 미진한 수준이었으며, 폐기물 배출량 조정 및 배치관련 규정이 오래되고 폐기물 수집 및 보관 방식이 비효율적이며 생활폐기물 및 독성/유해 폐기물의 무차별적 처분과 폐기물 처리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현재 관련법령 정비와 고품 폐기물 관리부의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친환경적 고품 폐기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관계자와의 선물 교환



▲ 기념 촬영

- 고품 폐기물 관리부는 향후 열처리 공장, 혐기성 소화 등 경제성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와 지역의 가정 폐기물 수집 서비스를 확장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천적으로 시행하고, 역구매나 예치금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 습관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고품 폐기물에서 더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은 강서구의 폐기물 처리 방법과 시스템, 음식물 종량제 도입 등을 설명하고 신재생 바이오 에너지 등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였다.

4) 신 행정 도시 - 푸트라자야

- 말레이시아의 3개 연방직할령 중 하나로 연방직할령은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며, 13개 주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푸트라자야는 계획 도시로 연방정부의 행정수도로 기능하는데, 말레이시아 초대 총리를 지냈던 툰쿠 압둘 라만 푸트라라 이름에서 도시명이 유래되었다.
- 말레이시아의 첨단산업단지로 유명한 멀티미디어슈퍼코리더(MSC)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원래 셀랑고르(Selangor)주에 속하였으나 1995년 10월 연방정부가 셀랑고르주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푸트라자야시를 설립하였고, 2001년 2월 포화상태에 달한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대신하여 연방정부의 행정수도로 삼기 위하여 연방 직할령으로 지정하였다.



▲ 푸트라자야 전경



▲ 푸트라자야 전경

- 도시를 물리적 성장의 유기체로만 보지 않고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이자 자연도 공존하는 21세기 도시계획 이념을 구현해 각광받고 있다.

- 2002년에 쿠알라룸푸르와 연결되는 초고속열차가 개통되었고, 푸트라자야 시내에는 모노레일이 운행된다. 관광 명소로는 말레이시아 총리부 청사인 페르다나푸트라(Perdana Putra), 시 제1의 이슬람사원인 푸트라 모스크 (Putra Mosque), 푸트라자야 독립광장, 연방 사법부 청사, 푸트라자야 호수 등 많은 곳이 있다. 또한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많은 교량도 눈길을 끌었다.



▲ 푸트라자야 총리 공관 앞



▲ 푸트라자야 총리 공관 앞

- 푸트라자야관리청은 "말레이시아의 영혼과 정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최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설과 전통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건설됐다"며 "디자인과 쾌적함은 국제수준이지만 정체성은 순수 말레이시아 특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 푸트라자야는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강서구 마곡지구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IV

연수성과 및 기타의견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해외연수단은, 금번 해외연수가 58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공복으로서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수 목적을 백프로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비록 짧은 연수 기간 중에도 해외 문화와 제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다양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금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 연수를 마치며, 우리구 지역발전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몇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 먼저, 싱가포르의 체계화된 도시계획이다. 1965년 인종 갈등으로 인해 독립하게 된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독립,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혼재, 좁은 국토의 도시국가라는 물리적 한계가 국가의 조속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으나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 분야에 있어서 신속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체계의 정립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세계적인 도시로의 육성'이라는 중장기적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국가 주도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싱가포르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 국토의 물리적 한계를 효율적인 조율과 통제가 가능한 도시국가로서의 강점으로 활용하여 도시와 건축, 개발과 보존, 도시민과 관광객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조직을 통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과 광역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도시설계와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이슬람 문화의 이해이다. 20년 전 이슬람 인구는 약 11억명이었으나,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이슬람 인구는 25%로 늘고 약 22억명 정도로 증가할 거라고 한다. 이렇듯 전 지구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 문화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단순 언론에 나오는 무서운 무장단체 째름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들은 이슬람 신자들 중 단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 현지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자면 요즘 한류를 통해 많은 이슬람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지만, 호기심을 통해 방문한 단 한번뿐이지 두 번째 방문은 쉽지 않을 거라고 한다. 강서구에서도 마곡지구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최대 규모의 보타닉 공원이 조성되어 관광 및 비즈니스를 위해 많은 이슬람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맞춰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우리와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강서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도 최소한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관광산업이다. 한정된 국토와 지하자원이 없는 싱가폴은 서비스 산업, 특히 문화적 다양성과 편리한 경유지로서의 매력을 살려 관광산업이 싱가포르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싱가포르 관광산업의 특징으로 다양성을 들수 있다. 중국, 인도, 말레이 등 다양한 문화를 한데 접할 수 있고, 한때 영국의 식민지로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좁은 국토와 잘 발달된 교통여건은 쉽고 편안하게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고, 다양한 언어로 표시된 관광 안내 표지판 역시 만족감 높은 관광을 도와준다. 싱가포르 주요 관광지와 거리를 체험해 봄으로서 강서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 마지막으로 두 나라에 공통적인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비슷한 형태로 죄인들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예전 죄인들을 형틀에 묶어 곤장을 때린 것처럼 두 나라에서 아직까지 죄인들을 다스리는 태형이라는 형벌은 형틀에 죄인을 묶어 엉덩이에 채찍을 때리는 형벌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기초질서를 비롯한 범죄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높은 벌금제도와 무서운 태형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요즘은 기계를 이용해 태형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한 대만 맞아도 살이 찢겨나가는 아픔이 있어, 맞는 아픔과 언제 맞을지 모르는 다음 태형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도 공포스럽다고 한다. 태형은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한 형벌인데 비해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형벌로 집행된다고 한다.

- 끝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연수가 계획되고 진행된 만큼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이 보고서에서 그치지 않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연수를 통해 제도적으로 우수한 부분들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로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 참고자료 : 두산백과(www.doopedia.co.kr)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